



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the Martyrs

2026.8



아프리카_하나님 말씀, 공격을 주도하다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 기도를 드린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패트릭 실비앙 목사
그가 "아멘"이라고 말하자 공격자들은 자리를 떠났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교회를 불태우고,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살해하기까지 하는 등 큰 횡포를 부립니다. 흉악한 독재자가 장악한 정부들은 자기 이외의 어떤 신도 숭배할 수 없게 만들려 합니다. 애니미즘Animism을 신봉하는 지역 원주민들은 기독교인들이 불행을 가져온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을 마을에서 쫓아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박해가 복음 전파에 대한 세상의 방어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는 성경적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공격의 주도권을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에는 아프리카에서도 사역하기 매우 어렵다는 두 나라인 부르키나파소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부르키나파소는 우리에게 각별한 곳입니다.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던 그곳 성도들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요청했던 것이 바로 성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질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르키나파소 성도 아미나를 통해 한 소박한 여성 공동체에 성경이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순교자의 소리 웹사이트에는 교회에서 봉사하던 중 남편이 살해되면서 혼자가 된 에티오피아 여성에 관한 독점 기사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비극 속에서도 변함없이 함께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역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주님께 신실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르키나파소 소망을 듣다

부르키나파소 북부 지역의 테러 공격으로 인해 2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고향을 떠나야 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믿음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공격의 표적이 된 기독교인들이었다. 아미나Amina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이들이 더 안전한 곳을 찾아 피난을 떠나고 있다.

아미나의 작은 집까지 가려면, 부르키나파소 수도인 와가두구 Ouagadougou의 중심부를 벗어나, 거대한 도시 외곽을 가로질러 마치 미로처럼 끝없이 펼쳐진 비포장도로를 거쳐 지나가야 한다.

그렇게 도착한 아미나의 집, 물결 모양으로 드리운 양철 지붕 밑에는 몇몇 여성이 둘러 앉아 있다. 오디오 플레이어로 함께 성경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다.

오늘 그들은 시편 130편을 공부하고 있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작은 라디오처럼 생긴 기기에서는 이 나라에서 통용되는 여러 언어 중 하나인 프랑스어로 시편 말씀이 읊어지고 있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 130:1-2)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내게 소망이 되었어요. 나이트 여자들은 대부분 학교에 다닐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그 상자에 하나님 말씀이 모두 담겨 있으니깐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답니다.” 무리 중 베로니카Veronica라는 이름의 여성이 말했다.

카트린느Katerine라는 여성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걱정이 밀려올 때면 성경 말씀이 자신의 관점을 바꿔준다고 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 제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말씀은 내게 더 큰 생명을 불어넣어 주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기쁜 미래를 얻게 될 거예요.” 카트린느는 이 말을 더 설명하며, 성경의 진리가 마치 심겨야 자랄 수 있는 씨앗과 같다고 덧붙였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또 다른 여성 크리스틴Christine은 예전에 채석장에서 바위를 부수어 자갈을 만드는 일을 했었다. 그녀는 “자라면서 글을 읽는 법을 배우질 못했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진심으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아미나 역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녀의 삶도 변화되었다.

◀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레미 목사는 여전히 말리 전역에 성경을 배포하고 있다.



▶ 자전거 사고 이후 다리에 심한 감염을 앓은 아미나

진리의 소리를 듣다

아미나는 무슬림 가정에서 자랐으며, 나중에 무슬림 남편과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으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아미나는 친정 소유의 밭에서 일하면서 아이들을 부양했는데, 어느 날 자전거 사고로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

오른쪽 다리에 난 상처는 감염이 심해지면서 좀처럼 낫지 않았다. 감염은 몸의 다른 부위로 번져갔고, 아미나는 결국 제대로 걸을 수도, 일상적인 집안일을 할 수도 없게 되었다. 약이 듣지 않게 되면서, 아미나는 전통을 좇아 무당을 찾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밤, 어떤 음성이 들려왔다. “잠을 자고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에게 가서 그들이 너를 위해 기도하게 하라’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미나가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다.

절뚝거리며 거리로 나간 아미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을 아는지 물어보기 시작했고, 마침내 누군가 교회 쪽을 가리켜 주었다. 그 교회의 목사는 아미나에게 단지 기도를 받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것인지 물었다.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이 참 하나님이라 믿으며, 아미나는 목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고 답했다. 복음에 대해 그에게 설명을 들은 바로 그날 아미나는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만져 주셨기 때문에 난 다리에 어떤 약도 바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해요.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십니다.” 아미나가 말했다.

극적으로 아미나의 건강은 호전되었지만, 이미 다리 근육이 손상되어 장애를 안게 되었고 걷기 어려운 상태가 된 후였다. 그런 아미나가 무슬림인 가족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자, 가족들은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하며 그녀를 강제로 다시 이슬람교에 돌아오게 하려 했다. 하지만 아미나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가족들은 경제적 지원을 끊고 그녀를

▶ 부르키나파소의 수도 와가두구 외곽의 채석장. 여성들, 특히 남편을 잃은 과부들과 아이들은 이 채석장에서 망치와 끌만 갖고 자갈을 만드는 일을 하며 생계를 잇고 있다.

집에서 쫓아냈다.

“가족들이 나를 거부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아미나가 말했다.

하나님만 의지하다

지역 사회로부터 단절된 아미나는 와가두구 외곽의 인구 밀집 지역으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근근이 살아야 했다. 근처에 화장실도 없는 곳인데다, 걷는 것조차 어려웠기에 아미나의 생활은 몹시 힘들었다. “어느 날은 집에만 틀어박혀 하루 종일, 밤새도록 울기만 했어요”라고 아미나는 말했다.

재정이 바닥날 무렵, 그녀는 다시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믿으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메시지를 들은 후, 아미나는 현지 목회자를 찾아가 자신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관해 털어놓았다.

그러자 그 목회자는 아미나를 최전방 사역자들과 연결해 주었고, 그들은 아미나가 화장실 시설을 갖춘, 작지만 안전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이 사역자들은 아미나가 움직일 수 있는 다리로 직접 운전할 수 있게 만들어진 특수 전동 삼륜차를 마련해주었고, 그것을 보관할 차고에 지붕을 엮을 수 있도록 골판지 모양의 철판까지 제공해주었다.

아미나에게 특히 의미 있었던 점은 그 작은 철판 현관 아래 드리운 그늘 공간이, 여성들이 주기적으로 모여 오디오 플레이어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장소가 되어주었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이 모임에 대해 “그들은 여기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내 삶도 더 나아지고 있고,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 느껴진답니다”라고 했다.

그녀는 무슬림들에게 핍박을 받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건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이시지요.”

아미나의 가장 큰 소망은 현재 야외 성경 공부에 오고 있는 여성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자신도 사역을 계속 해나갈 힘을 얻는 것이다. “성령께서 항상 나를 인도하셔서, 지금 하는 일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지금 잠들면 안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할 때지요.” 아미나가 말했다.



2026년 8월 기도 달력

facebook.com/VOMKorea.kr
instagram.com/vomkorea
youtube.com/voiceofthemartyrskorea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2	3	4	5	6	7
 이란 진리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성경을 은밀히 전해줄 수 있도록	 타지키스탄 정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미등록 교회들을 위해	 베냉 에도사와 마엘레처럼 무슬림 지역사회에서 핍박 당하는 개종자들을 위해	 기니 부족 간 분열로 피해를 지역에 신실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나이지리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에 과부가 된 기독교인 여성들을 위해	
9	10	11	12	13	14
 인도네시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을 보고 복음에 마음을 여는 무슬림들을 위해	 마다가스카르 이슬람 무장 단체 대원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기를	 시리아 교회와 성도들이 소망의 등대와 평강의 원천이 되도록	 쿠바 종종 일자리와 여러 기회를 거부당하는 성도들의 평안과 인내를 위해	 북한 단파 라디오로 북한에 복음 방송을 송출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16	17 대체공휴일	18	19	20	21
 튀르키예 튀르키예에 정착한 난민 수천 명이 복음에 들을 수 있도록	 말리 이슬람 무장 단체에 핍박당하는 기독교인들이 담대하고 강건하도록	 지부티 지부티 모든 성도들이 개인 성경을 가질 수 있도록	 바레인 외국인 기독교인 근로자와 현지 성도들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증언하도록	 인도네시아 조요, 세티아반, 위라가 순다족에게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23	24	25	26	27	28
 지부티 전도와 양육을 통해 많은 지부티인이 예수님을 굳게 믿도록	 아랍에미리트 기독교 개종이 범죄로 간주되어도 새신자들이 담대할 수 있도록	 카메룬 보코하람의 표적이 된 지역에서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부르키나파소 폴라니족 개종자 사투의 믿음이 성장하여 동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잠비크 이슬람 무장 단체가 일으킨 반란으로 난민이 된 성도들을 위해	
30	31				
 방글라데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위협에서 성도를 지키시고 그들에게 평안 주시기를	 이스라엘 선교사를 격렬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도록				

**지금 보고계신
순교자의 소리 무료 소식지,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FRIDAY	SATURDAY
	1
	 코모로 코모로에 거주하는 기독교인 이주민들이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7	8
 콜롬비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레드존' 목회자들을 지키시고 격려하시기를	 이집트 이슬람에서 개종한 후, 가족들에게 핍박받는 새신자들을 위해
14	15 광복절
 말레이시아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불법인 말레이족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전도하도록	 멕시코 복음에 반대하는 이교도들의 마을에서 핍박당하는 전도자들을 위해
21	22
 서사하라 정부 관리들의 마음이 복음에 더 열릴 수 있도록	 스리랑카 지역사회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도록
28	29
 사우디아라비아 가족에게 위협당한 새신자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말라위 신앙 활동 때문에 직업과 집, 건강까지 잃은 성도들을 위해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Christian Council for Financial Transparency Korea
1호 인증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 난민 자녀 1,061명에게 필요한 교육을 지원해주세요!

교회 건물들이 불태워졌습니다. 목회자들은 살해를 당했습니다. 60만 명이 넘는 부르키나파소의 기독교인은 살던 곳에서 도망쳐 난민이 되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르키나파소에서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자행한 테러 공격의 결과입니다. 이 테러의 한복판에서 핍박받는 기독교인 가정의 아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기독교 가정의 아이들, 특히 부모 중 한 분 또는 두 분 모두를 잃은 가정의 아이들을 돕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 각자에게 수업료 및 교복, 1년 전 학기 매일 한 끼 식사와 학용품으로 가득 채워진 책가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어린이가 1년 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지원해주세요!

**135,000원으로 어린이 1명을,
675,000원으로 어린이 5명을,
1,350,000원으로 어린이 10명을,
2,700,000원으로는 어린이 20명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표적이 된 기독교인 자녀들을 직접 도울 수 있는 귀한 사역에 동역하기 원하시는 한국 교회나 성도님은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를 이용하여 8월 31일 까지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순교자의 소리 웹사이트: www.vomkorea.com/donation
(납부 유형에서 '부르키나파소' 선택)
2. 계좌이체: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 소리
(본인 성명 옆에 '부르키나파소'라고 기재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scan me!



기도로 마주한 죽음

“이곳이 바로 우리 나라에 이슬람이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중앙 아프리카공화국 북부 변방에 자리한 엔델레N’dele 마을 일대를 가리 키며 패트릭 실비앙Patrick Sylvian 목사가 한 말이었다. 이곳은 그가 평생을 살아온 곳이자, 이슬람 극단주의 반군들이 이웃 국가인 차 드Chad와의 국경을 아무런 제재도 없이 수시로 넘나드는 곳이다.

사헬Sahel이라 불리는 이 아프리카 지역에는 무슬림이 대다수인 북 부 지역들과 기독교가 지배적인 남부 국가들이 인접해있다. 2012 년, 셀레카Seleka, 현지어로 동맹을 뜻함으로 알려진 이슬람 극단주의 반군 집 단이 결성된 후, 남쪽으로 진격해 수천 명을 학살하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인 방기Bangui까지 점령하게 되었다.

이후 반군들은 방기에서 쫓겨났지만, 전국 각지에서 전투가 계속 되는 등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현재 유엔군이 엔델레 공항을 수비하고 있는 덕분에 마을은 대체로 안정된 상태이지만,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계속해서 지역 내로 몰려들고 있다.

패트릭은 전통적인 부족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엔델 레의 복음 사역자로서 30년 넘게 사역해 왔다.

패트릭은 20대 후반 시절 치명적인 병에 걸렸었다. 가족들은 섬 기던 우상들이 병을 치유할 초자연적인 힘을 지녔다고 믿으며 계 속 제사를 올렸지만, 패트릭은 2년 동안이나 고통을 겪어야 했다.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의사들 역시 치료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기적이 일어났다.

“죽음을 기다리던 중에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패트릭, 난 나 게 될 거란다.’ 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유할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어요.”

패트릭은 그 즉시 가족의 우상들을 모두 버렸다. 그후 얼마 지나 지 않아 그는 건강을 되찾았다. 이 일을 목격한 그의 아버지와 어머 니 역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 패트릭은 이내 목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다.

“나는 우상 숭배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 습니다.” 패트릭은 말했다. 그는 다른 목회자들을 양육하고, 나라 에 내전이 벌어진 동안 고난을 겪은 교회들을 일으켜 세우는 데 주 력하고 있다.

기도로 끝났으니

엔델레의 흙길을 벗어나 야자나무로 엮은 지붕을 얹은 가판대에 서 현지 주민들이 물건을 사고파는 바로 그곳에서, 이슬람 극단주 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종종 살해하기까지 한다. 패트릭 은 그들의 수법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

2012년 셀레카 반군이 공격을 시작했을 때, 그들이 정부군과 교 전을 벌인 곳은 패트릭의 교회 바로 옆이었다.

“그들은 총을 갖고 있었고, 철저히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마을 쪽으로 내려오더니 총을 쏘기 시작했고, 바로 이곳에서 총격을 이 어갔습니다. 경찰과 헌병들이 여기, 교회 근처에 있었는데도 말이 지요”라고 패트릭이 말했다.

무방비 상태였던 정부군이 후퇴하면서 전투 횡수는 줄었지만, 무 슬림 집단은 기독교인들을 강제로 개종시키거나 떠나게 만들기 위 한 전술을 고안해냈다. 그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업 도 운영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버

♥ 2012년 여러 이슬람 극단주의 반군 집단들이 연합하여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수도 방기를 점령한 후, 국가 전역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져 왔다. 이후 정부 군이 다시 통제권을 되찾았지만, 오늘날에도 이슬람 극단주의 집단들은 계속 해서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있다. 수천 명이 아직도 난민 수용소에서 지내고 있다.



(사진 출처: Magnus Manske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2.0/deed.en>)



▲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극단주의 반군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잦다.

린 것이다. “그들의 전략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 이슬람교로 다시 개종시키려는 것입니다.” 패트릭이 말했다. 이러한 압박에 굴복하여 개종하는 기독교인들이 매년 몇 명씩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20년, 이 지역에서의 전투는 더 격렬해졌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의 모든 소유를 다 앗아갔습니다. 농지에서는 총격을 벌이고, 기독교 공동체 소유의 모든 것을 훔쳐갔어요”라고 패트릭은 말했다.

전투가 벌어지면서 많은 기독교인이 피신하던 와중에, 패트릭은 교회 공동체에 영적인 전투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20년 1월, 컨퍼런스에 참석하러 방기에 갔었는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떠나지 말라. 이 교회에 남아 기도하라’는 계시를 주셨어요.” 패트릭이 말했다.

계시로 격려를 얻은 패트릭은 마을로 돌아와 엔델레에 머물렀으며, 마을 주민 대다수가 유엔군의 보호를 받기 위해 공항으로 몰려갔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리를 지켰다. 패트릭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는 대신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남아있던 다른 기독교인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조직했다.

패트릭은 기독교인들에게 일주일은 이 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그 다음 주는 다른 교회로 이동하여 기도해보자고 촉구했다. 이 활동은 해당 지역의 많은 교회에 순회 기도 모임 방식으로 번져나갔다. “그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마주하더라도 굳건히 버티고 믿음을 강건하게 지킬 것이라고요”라고 패트릭은 말했다.

또한 그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각오해야 한다는 사실을 당부했다. “성경은 핍박이 다가올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핍박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구원을 주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부탁

2025년 초,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패트

릭을 공격했고, 그는 자신의 생명이 곧 끝날 것이라 확신했다.

“여성 집사님 한 분과 6살짜리 아이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가던 중 반군들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 이슬람 무장 세력들은 패트릭을 심하게 구타하고 그 여성을 성폭행했다. 그리고는 패트릭을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그들은 내 목을 베겠다고 했어요.”

생명이 다해가던 그 순간, 패트릭은 무장 세력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다.

“그들이 나를 죽이기 전... 난 그들에게 말했어요. 기도를 하고 싶다고요.”

그들은 패트릭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패트릭은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합니다’라고요.”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공격자 중 한 사람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전화기를 꺼내 보더니,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가 버리더라고요. 그건 완전히 기적이었습니다.” 패트릭은 이후 그 여성과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패트릭은 그날 입은 구타의 상처로 인해 지금도 다리를 절뚝이며 걷는다. 하지만 계속해서 더한 핍박을 받을 위협 속에서도, 그는 사역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기도는 여전히 그가 가장 열정을 쏟는 일 중 하나이다.

“핍박 속에 살아가는 교회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준비를 갖추고 기도으로써 그 길을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계속 나아가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패트릭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오랫동안 고난을 겪어 온 기독교인들을 위해 모든 기독교인들이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기도로 이 상황을 마주했고, 기도로 이 상황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2026년 하반기, 드디어 제주에서 지하신학교가 열립니다!

제주에서 열리는 단 한 번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지하신학교는 개신교 모든 교단이 동의하는 기본적인 '복음'을 신구약 말씀을 통해 깊이 이해함으로써, 성경을 올바르게 읽게 도와줍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작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전체 신구약에 계시된 '크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 2025년 지하신학교 참석자들의 피드백

"교회는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어려운 시대이다. 순수한 말씀만 증거되는 귀한 학교다"-문○목사

"1강만 들어도 등록금이 아깝지 않다. 복음에 대해 배우고 은혜에 감격하게 된다"-김○○집사

"종교의 자유가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시간이었다. 진짜 교회의 모습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려는 성도라면 꼭 한번 들어보도록 추천한다"-김○○집사

㉡ 신청방법 및 강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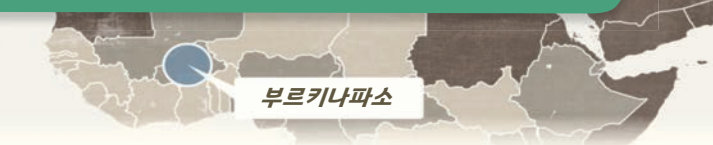
- 6개월 과정 :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 월 1회(8.22 / 9.19 / 10.31 / 11.21 / 27.1.23 / 2.20)
※ 날짜 변경시 2달 전에 미리 안내 드립니다.
- 훈련비 : 400,000원(6개월 과정, 식사 제공)
- 강 사 : 순교자의 소리 에릭 폴리 목사 / 현숙 폴리 대표
- 장 소 : 순교자의 소리 제주홀 (구체적인 장소 정보는 등록 시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및 문의
㉢ 010-3151-2065 / 02-2065-0703 (지하신학교는 별도의 학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신교인이거나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하신학교의 내용은 '복음' 책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8/22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다윗의 자손으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9/19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10/31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
11/21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1/23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
2/20	예수 그리스도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부르키나파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슬람 극단주의 집단들이 지금도 계속 교회를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자들은 부르키나파소 전역에서 전도 사역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에 대한 더 자세한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핍박으로 난민이 되었으나
자립하여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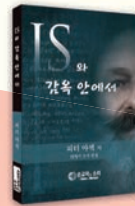


치명적인 공격에서 생존하여
사역 중인 두 목회자



태양광으로 작동되는 영상기로
사역 중인 복음 전도자들

이달의 |추천도서|



『IS와 감옥 안에서』

피터 야섹 | 10,000원

IS를 비롯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부르키나파소를 비롯한 아프리카 전역에서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수단 기독교인들과 함께 사역하다 체포되어 1년 이상 IS와 감옥 안에서 생활한 순교자의 소리 지도자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란 - 희망과의 조우』

릴리 스미스 기술 | 10,000원

폭탄이 떨어지는 혼란과 정부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며 신앙을 굳건히 지켜 나가는 이란 기독교인들의 이야기.



『이슬람이나 죽음이나』

마르존 반 달렌 | 10,000원

예수님을 부인해야 살려준다는 협박에도 신앙을 지킨 신실한 기독교인들의 이야기.

※ 도서 주문을 원하시면 오른쪽 QR코드를 이용해 주세요.

